

법조타운 조속한 건립과 사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발의일자 : 2007. 4.

발 의 자 : 최천수의원외14인

1. 주 문

별첨 “결의문(안)”과 같음

2. 제 안 이 유

- 2001년 10월 거제동 현청사로 이전되면서 서부산권 법조민원 편의를 위해 서부지원(청) 신설 방안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몇년째 부지확보 등의 이유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서부산권 거주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동부산권에는 시청과 법조타운 등 공공시설(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센텀시티 등 업무지원 및 비즈니스시설이 편중되어 도시의 동서간 불균형 심화로 서부산권 주민들은 지역의 낙후성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서부산권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국가공단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이 집중되고 항만 및 수산관련 법조민원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각종 개발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관련 민원편의를 위한 공공법률 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
- 이에 우리의회는 37만 사하구민과 함께 서부산권의 131만 주민의 법률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서부산권을 연계한 교통망과 접근성 등이 용이한 사하구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임.

3. 보 낼 곳

- 대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청(투자개발기획팀장), 부산광역시회의장

법조타운 조속한 건립과 사하구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문(안)

서구 부민동에 있던 부산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의 청사가 건물 노후화와 협소로 늘어나는 법조민원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2001년 10월 거제동 現청사로 이전되면서 서부산권 법조민원 편의를 위해 서부지원 신설 방안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몇 년째 부지확보 등의 이유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서부산권 거주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부산권에는 시청과 법조타운 등 공공시설(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센텀시티 등 업무지원 시설이 편중되어 도시의 동서간 불균형의 심화로 서부산권 주민들은 지역의 낙후와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산권은 경제자유구역청과 국가공단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이 집중되고 항만 및 수산관련 민원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 분쟁이 계속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서부산권은 법률 민원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 전무하여 이미 현법조청사가 연제구로 이전되기 전에 1999년 4월 제3대 사하구의원 16명의 만장일치로 서부지원(청)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여 법조타운 유치 당위성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부지원 및 서부지청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산권 주민들에게 균형있는 법률서비스 혜택이 주어지고 나아가 도시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부와 관계기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서부지원·지청의 입지는 무엇보다 교통여건, 법조민원 수요예측, 도시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하구지역이 최적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우리구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사하구는 서부산의 관문으로 항만, 공항, 지하철이 연계된 편리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남항대교 및 을숙도 (명지)대교가 개통되면 서구, 영도지역뿐 아니라 부산의 외곽 및 내부 도심과 광역순환도로망을 형성하여 경남 진해 등과도 연계되어 서부산과 경남 일원의 민원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며,

둘째, 신평·장림공단이 소재하고 인근에 경제자유구역청, 신항만 등이 입지하여 경제활동과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신흥개발지역으로 개발관련 법률분쟁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과 함께 서남부경제권의 중심기능 수행으로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낙동강하구와 다대포 일원의 관광자원개발 등으로 서부산의 중심도시로서 부상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상응하는 공공법률서비스 지원기관의 확충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과 도시 인프라 및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서·남부경제권의 중심도심인 사하구가 서부지원 및 지청의 건립 최적지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서부산권중에서도 사하구는 인구밀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일동은 37만 사하구민과 함께 서부산권의 131만 주민의 바람을 담아 법조타운이 조속히 사하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7년 5월 9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일동